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문화부 간담회가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 : 문화부 운영위원, 각 성가대 지휘자, 대장, 총무, 각 동교회 회장
교육부회의가 예배 후 교회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14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속회 개학을 겸한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보름맞이 율놀이를 합니다. 2남선교회가 주관합니다.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부터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의 정원을 채워서 앉아 주십시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두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받아 가시고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준 씨와 오상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5일(토) 낮 12시 잠실 더다이닝호수 레스토랑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 58:1~9a / 시 112:1~10 고전 2:1~12 / 마 5:13~20

막 10:13-16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김나경 박석희 이국노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김필순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국지연 서안나 한기택 장혜정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국노 5여선교회
떡 대 접 : 한기택 장혜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삶을 묶어두지 말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난을 만난 이에게 선뜻 다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한숨에 웃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몰지각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난당한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힘써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고전2:1-16

속 3:1-10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영락 김영순 김지호 전혜리
 김현동 김현주 박상규 박시내 박윤숙 배삼순 백묘현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오자영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혁순 이수정 배재경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현순 이호원 정두리 정현모
 조경숙 하정석 이명희 한기택 허성호 진은혜 홍복선 홍춘숙 무명

감사헌금

김명순 김승현 김수진 김용진 박효선 김중수 이순정 김진중 김철수
 유영남 문복순 박미연 시시권 백경임 신민철 양재민 유혜인 이광석
 이경희 이광재 이정은 이호정 전인섭 정선희 정현선 한기택 장혜정
 한미영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홍복선 인덕교회 무명9

생일헌금

무명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임승동 백혜숙 추현영 무명4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섬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연합수회

막고 품다

- 정끝별

김칫국부터 먼저 마실 때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
 일갈했던 엄마의 입말, 막고 품어라!
 서정춘 시인의 마부 아버지 그러니까
 미당이 알아봤다는 진짜배기 시인의 말을 듣는
 오늘에서야 그 말을 풀어내네
 낚시질 못하는 놈, 둠벙 막고 푸라네
 빠져나갈 길 막고 갇힌 물 다 푸라네
 길이 막히면 길에 주저앉아 길을 파라네
 열 마지기 논둑 밖 넘어
 만주로 일본으로 이북으로 튀고 싶으셨던 아버지도
 니들만 아니었으면,을 입에 다신 채
 밤보따리를 싸고 또 싸셨던 엄마도
 막고 품어 일가를 이루셨다
 얼마나 주저앉아 막고 품으셨을까
 물 없는 바닥에서 잡게 될
 길 막힌 외길에서 품게 될
 그 고기가 설령
 미꾸라지 몇 마리라 할지라도
 그 물이 바다라 할지라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온기와 신비를 전하는 이가 되십시오. 아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부지깥이 같은 우리를 생명의 기운 가득 담은 새싹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최다미 선생 하현철 권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정한구 박범희 박효선 왕영순 박미영
	헌금위원	한상의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영적 생활의 본질

나무가 흙에서 뽑히듯이, 강물이 발원지에서 분리되듯이, 사람의 영혼이 그 근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쇠약해진다. 거룩함이 없이는 선함이 혼돈으로 둔갑하며, 선함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우연한 것이 된다. 존재의 방식이 중요하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사모하는 것, 즉 성스러운 사람이나 사상에 충성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생활을 온전하게 붙들어준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상이나 사회적인 이상, 혹은 예술적인 이상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붕처럼 그 위를 덮게 되면 빛을 차단하게 된다. 심지어 손바닥으로도 태양 빛을 가릴 수 있다. 우리는 가까운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오그라들 것이다.

기도는 최고의 것을 사모하는 일이다. 시야에 하느님이 없을 때 우리는 부러진 사다리 신세가 된다. 기도하는 일은 사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오르는 일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 자기는 바퀴의 중심이 아니라 돌아가는 바퀴의 바퀴살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자기의식에서부터 자기를 내어맡김으로 바꾼다. 하느님은 모든 힘들이 향하는 중심이다. 그분은 원천이며, 우리는 그분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조수의 밀물과 썰물이다.

기도는 마음을 자기 이익의 협소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룩하신 분의 거울 속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아의 정반대로 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측면으로부터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열등한 것을 정복하는 길이며,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절대로 필요한 것과 무익한 것 사이를 분별하는 길이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과 의도를 분명하게 해준다. 기도는 우리의 참된 열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잊고 지내는 열망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기도는 자기정화의 행동

이며 영혼의 검역소다. 기도는 우리에게 정직할 기회를 준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주장과 확신, 생각과 양심의 일치가 모든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열망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다. 너무 자주 우리는 무엇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모른다. 기도는 우리들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이상들을 심어준다. 구원, 마음과 혀의 순수함, 혹은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생각으로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관심이 되고 열망이 되고 도달할 목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나의 혀를 악에서 지켜주시며 나의 입술이 교활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케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다.

기도는 영적 생활의 본질이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영적인 체험에 나타난다. 기도가 이끄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것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한다. 소우주의 세계에서 기도의 흐름은 멕시코 난류처럼, 우리들 안의 차가운 것들 속에 따스함을 전하며 단단한 것들을 녹아내리게 만든다. 충성조차도 그 충성할 힘을 이끌어 가는 흐름으로부터 떨어질 때는 무관심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정의가 잔인성으로 타락하며, 의로움이 위선으로 둔갑하는가!

기도는 과거의 매우 드문 경험, 곧 사물들이 의미와 축복으로 빛났던 경험을 현재의 것으로 되살려준다. 그런 경험은 낮 시간에 치워놓았던 촛대처럼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낼 때조차 매우 중요하다. 밤은 오게 마련이며 우리는 다시 그 작은 불꽃 둘레에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어둠 속에 비취는 섬광과 같다. 바로 이 빛 속에서 우리는 더듬거리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기도는 올바른 것을 보게 해주며 방해하는 것들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준다. 그 밝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의 가치, 희망의 범위, 우리 행동의 의미를 바라본다. 시기심과 두려움, 절망과 후회, 고민과 비탄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지만 그 빛에 의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